

설득, 이해, 실천의 의지 새 로마자 표기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권재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1. 머리말

새 로마자 표기법의 성공적 정착 방안에 대한 이 글을 쓰려던 참에 필자는 대학신문에 실린 어느 동료 교수의 다음 글을 접하게 되었다.

“이번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거북선’은 Geobukseon이 된다. 이것을 발음하면 ‘조벽선’ 또는 ‘지오벽시언’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발음하다 보니 새삼 떠오르는 것이 20여 년 전에 판매되었던 ‘거북선’이라는 담배이다. 그 담배곽에 있던 영문 표기가 바로 Geobukseon이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의 로마자 표기법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해 오던 로마자 표기법이 아닌가. 그렇다면 새로 제정되는 로마자 표기법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폐기 처분했던 것을 다시 꺼낸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해야 하겠다. 이를 놓고 정보화 시대를 떠먹인다면 이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정이 이러하니, 뭔가 자꾸 일을 벌여야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도 생기지 않느냐는

자조적인 말이 나오기까지 한다. ... 말하자면, 무언가 계속 바꾸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식이 관성 또는 타성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가운데 나온 것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강박 관념이 만들어낸 것 가운데 하나가 이번의 새로운 로마자 표기법은 아닐까.”

표기법의 전문가가 아닌, 그러나 사회 여론을 이끌어 가는 학자들이 새 로마자 표기법에 대하여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새 로마자 표기법이 과연 얼마나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다. 그래서 필자는 이 글에서 먼저 새 로마자 표기법의 당위성을 전문가, 비전문가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함을 밝히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온 국민들이 충분히 알게 하여, 이를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먼저 새 로마자 표기법에 담긴 뜻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주장했던 표기법과 새 로마자 표기법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새 표기법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과 그리고 정해진 어문 규범은 준수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다.

2. 새 로마자 표기법에 담긴 뜻

2.1. 새 로마자 표기법이 이제 시행되고 있다. 벌써 도로 표지판, 지하철역 등에서 그 변화를 본다. 새 로마자 표기법에 담긴 뜻은 로마자 표기가 이제 의지만 있으면 통일되어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옛 로마자 표기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체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술한 통속적 표기를 유발하여 로마자 표기가 혼란스러웠다는 것이다.

국어에서 ‘어’ 모음은 사용 빈도가 매우 높다. 옛 로마자 표기법에는 ‘어’를

ö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이 글자의 사용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인명이나 회사명 표기에서 전혀 쓰이지 않았다. 그 결과 ‘어’ 표기는 다양한 통속적 표기를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어 ‘건국대학교’의 ‘건’에 쓰인 ‘어’는 Konkuk University에서 보듯이 o로 표기되었다. ‘삼성’과 ‘현대’의 ‘성’과 ‘현’에 쓰인 ‘어’와 ‘여’는 Samsung, Hyundai에서 보듯이 u, yu로 표기되었다. 또 어떤 데에서는 ‘어’를 eo로 적었다. 정작 ö는 쓰이지 않고 u, o, eo 등이 쓰였다. 이른바 반달표를 사용한 ö, ü 표기는 따르라 하기 어려운 표기였다. 이를 바로 잡은 것이 이번 새 표기법의 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ö, ü는 인명, 회사명에 쓰라 해도 쓰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새 표기법의 eo, eu는 충분히 따를 수 있는 표기인 셈이다. 실행 가능한 표기법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새 로마자 표기법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2.2. 새 표기법은 우리말 음운 체계를 존중하였다. 옛 표기법의 가장 큰 단점은 국어의 음운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국어 자음 체계에 존재하지 않은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별하여, 국어의 음운 체계를 무시하였다. ‘ㄱ, ㄷ, ㅂ, ㅈ’을 단어 첫머리에서는 k, t, p, ch로 적고 중간에서는 g, d, b, j로 적어,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를 변별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무척 어려웠다. 예를 들어 같은 ‘ㄷ’이 쓰인 ‘도동역’을 Todong처럼 t와 d로 각각 적어, 일반 국민들은 왜 이렇게 적어야 하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했다. ‘제주도’를 Cheju로 두 ‘ㅈ’을 각각 ch, j로 표기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기법이다 보니 표기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새 표기법은 이러한 불필요한 구별을 없앴다.

국어의 자음 체계에는 ‘ㄱ-ㄷ-ㄱ’을 변별한다. 그러나 옛 표기법으로는 이러한 변별이 지켜지지 않았다. ‘ㄱ, ㄷ, ㅂ, ㅈ’은 k, t, p, ch이고 ‘ㅋ, ㅌ, ㅍ, ㅊ’은 k', t', p', ch'였는데 어쨌든 대체로 생략되었다. 특히 인명, 회사명에서는 전적으로 생략되었다. 그 결과 ‘ㄱ, ㄷ, ㅂ, ㅈ’과 ‘ㅋ, ㅌ, ㅍ, ㅊ’은 전혀 구별되지 못했다. ‘제호’와 ‘체호’는 모두 Cheho로 적혔다. 이제 새

표기법은 이를 각각 Jeho와 Cheho로 구별하게 되었다. 국어에서 꼭 필요한 구별이 분명해진 것이다.

2.3. 새 표기법은 정보화를 고려하였다. 옛 표기법은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았다. 반달표(ö, ü)와 어갯점(k', t', p', ch')은 컴퓨터에서 구현하기가 매우 불편했다. 따를 수 없는 표기법이다 보니 표기법 규정에 어긋나게 표기하게 되었다. 정확한 규범을 요구하는 정보화 시대의 글자 생활에서 이러한 표기법을 계속 유지하면 부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게 되어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새 표기법에는 컴퓨터 자판에서 쓰기 불편했던 반달표(ö, ü)가 없어졌으며, 거부감을 주었던 어갯점(k', t', p', ch')도 없어진 것이다.

2.4. 새 표기법은 사용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실제 생활의 편익을 고려하였다. 인명에서 성(姓)도 원칙적으로 표기법에 따라야 하나, 성 중에는 표기법을 따르기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고 개별 표기를 허용하였다. 예를 들어 '이(李)'는 표기법에 따르면 I이지만 I로 표기하는 사람은 없고 Lee로 표기하는 사람이 95%를 넘으며 그 밖에 Rhee, Yi, Ri, Li, Rhie, Lie 등이 쓰이고 있다. 표기법에 따른 표기를 권장하기 어려운 성씨에 한해서 관습적 표기를 참조하여 성씨 표기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음은 실제 생활의 편익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회사명도 그동안 써 온 것을 허용하고 있음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경제적인 고려로 옛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표지판은 2005년 말까지,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출판물은 2002년 2월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3. 새 로마자 표기법의 당위성을 설득하자

3.1. 로마자 표기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에서 밝힌 새 표기법에 담긴 뜻을 바탕으로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마자 표기법은 그 특성상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래서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견해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택해 결정하였음을 설

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한 조건을 내걸어 마치 표기법 전체가 불합리한 것으로 비판하는 것은 의미 없는 논쟁이라는 것도 설득해야 한다. 이제 누구에게 무엇을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설득의 대상은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과 일반 국민들이다.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언어학자, 영문학자, 언론출판인, 행정가 등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주요 설득 대상은 비전문가이면서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다. 대개의 경우, 이들은 표기법 규정의 어느 한 면만 부각시켜 전체를 부정적으로 판단한다. 앞에서 예를 든 Geobukseon 이야기도 그 한 예이다.

잘 알다시피, 로마자 표기법에서 최선책, 완벽한 규정은 있을 수 없다. 흔히 정답이란 있을 수 없고, 다만 모범답만 있을 뿐이라 한다. 그래서 여론을 주도하는 비전문가들에게 다음 사항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3.2. 국어의 음운 구조와 로마자 글자에는 피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선 모음부터 살펴보자. 국어의 단모음은,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이, 에, 애, 으, 어, 아, 오, 우'와 같이 8개를 설정한다. 그러나 로마자에는 'a, e, i, o, u'와 같이 5글자뿐이다. 적어도 국어의 단모음 3개에는 새로운 글자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는 로마자 'a, e, i, o, u'에 국어 단모음의 어떤 것을 배당하느냐이며, 둘째는 나머지 셋에 어떤 글자를 새로 만들어 배정하느냐이다. 대부분 'a, e, i, o, u'에 각각 '아, 에, 이, 오, 우'를 배정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렇게 되면, 남은 문제는 '애, 어, 으'이다. '애'는 일찍부터 ae로 정착되었다. 과거 문교부 표기법이나, 옛 표기법이나, 또는 통속적 표기법 모두가 이에 동의한다. 이제 '어, 으'가 남는다. '어, 으'에 로마자 한 글자를 배정하기 원하면, 위의 다섯 개 모음 가운데 어느 하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통속적 표기법처럼 '어나 으'에 u를 배정하면 다시 '우'가 문제된다. 그러나 어느 언어이든 u 글자는 '어나 으'보다는 '우'에 배당되어 있다. 결국 '어, 으'의 해결 방법은 어떤 글자에 특수 부호를 붙여 새롭게 만들거나, 두 글자를 조합하는 수밖에 없다. 이른바 반달표를 붙인 ö, ü가 전자에 속하는, 옛 표기법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 표기는 컴퓨터 자판에서 실행하기가 무척 힘들어,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 새 표기법에서는 두 글자를 조합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eo, eu가 그것이다.

자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어의 자음 체계에는 ‘ㄱ-ㅋ-ㆁ’처럼 ‘평음-격음-경음’ 세 소리가 변별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로마자에는 그러한 글자가 없고, 오히려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별이 있다. 그래서 ‘ㄱ-ㅋ-ㆁ’ 세 글자를 표기하기 위해 k와 g 두 글자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 여러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3.3. 로마자와 영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로마자 표기는 영어가 아닌 데도 영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너무 많다. 흔히 ‘이름을 영어로 어떻게 쓰지?’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여기서 분명히 할 일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가 국어의 영어 표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영어의 철자 규칙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 영어의 ur이 우리말의 ‘어’ 소리와 비슷하게 실현된다 하여, 우리말의 ‘어’를 ur로 적자는 의견은 온당하지 않다. ‘아’를 ah로 적자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어디까지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일정한 체계를 가진 문자 체계이다. 따라서 글자 하나하나가 개별적 가치를 지니기보다는 표기법 전체 안에서 다른 글자와 관련해서 각각의 글자가 가치를 지닌다. 로마자를 단순히 발음을 유도해 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어 음운을 체계적으로 표기하는 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한글이 없어 다른 나라처럼 전적으로 로마자를 차용하여 문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당연히 국어 음운 체계에 맞추어 문자를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단순히 영어 철자에 기대어 발음을 유도하기 위한 것에 로마자의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문자 체계라는 점에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3.4. 로마자를 외국인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말을 이해하려는 외국인에게도 로마자 표기법이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문자 생활을 보조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외국인을 미국 사람만을 염두에 두는 생각도 온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미국 사람을 위한 영어식 표기에 집착하는 것은 로마자 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이다.

우리는 외국인이 로마자 표기를 보고 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를 바라지만, 외국인이 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국어 발음은 한국인에게만 쉽지 한국어가 모국어인 아닌 외국인들에게는 어색한 발음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에서 수십 년 살아온 외국인도 한국어 발음이 자연스럽게 많은 법인데 단순히 한국에 관광 온,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이 로마자 표기를 보고 한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내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언어 배경이 천차만별인 각국의 외국인들이 같은 로마자 표기를 보고 제각기 다르게 발음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로마자 표기를 보고 우리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발음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전문가들은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제나 외국인이 어떻게 발음할까를 생각한다.

또한 한글과 달리 로마자는 발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문자이다. fin이라는 표기를 놓고 영어는 [핀]으로 발음하지만 프랑스어는 [팽]으로 발음한다. r만 하더라도 영어의 r와 프랑스어의 r는 발음이 현저히 다르다. 프랑스어의 r는 마치 국어의 [ㅎ]과 비슷하다. 즉 언어마다 로마자의 음가가 다르다. 대부분의 언어는 u를 '우'로 읽는 데 반해 프랑스어의 u는 늘 [위]로 읽는다. 영어는 u를 어느 한 가지 소리로 고정해서 읽지 않고 bus, cut, sun 등에서는 [어]로 읽다가 Bush, put에서는 [우]로 읽고 fuse에서는 [유]로 읽는다. 이와 같이 로마자는 발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로마자를 쓰는 각 언어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로마자를 읽을 때 그 언어에서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서 발음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외국인이 로마자 표기를 자기 언어식으로 읽은 것을 한국어 발음과 다르다고 하여 로마자 표기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영어에서는 지명이나 인명을 함부로 발음하지 않고 이 단어의 발음이 어

떻게 되느냐고 묻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Houston의 발음이 [휴스턴]인 곳도 있고 [하우스턴]인 곳도 있다. 따라서 발음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 사람에게 Geobukseon을 발음해 보라고 하고 [조벽션] 또는 [지오벽시언]이라는 대답을 들은 다음, 이런 표기는 잘못이라는 식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Geobukseon의 발음은 국어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 모르는 미국 사람은 알 리 없다.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g와 eo의 발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김포]를 Gimpo라고 표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짐포]라고 발음하니 안 된다는 주장 또한 그러하다. Gimpo의 발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아 보지 않고 제멋대로 [짐포]로 발음하는 미국 사람이 있다면 그 외국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외국인이라면 Gimpo의 발음이 무엇인지 한국인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알아 봐야 할 것이다. 만일 Gimson[gimsn]이라는 영어 인명을 [짐슨]이라고 발음한 한국인이 상대방으로부터 Gimson은 [김슨]이라고 발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일본 지명 Ginza를 [진자]로 발음하는 외국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국인도, 일본인도 Ginza라는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4. 새 로마자 표기법의 내용을 널리 알게 하자

4.1. 새 로마자 표기법이 지난 여름 고시되었지만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며, 오히려 옛 로마자 표기법을 계속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해당 지명의 표기가 바뀐 지역의 단체들이 그러하며, 외국인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다. 옛 표기법이 어떠한 것이기에 그러한지 우선 살펴보자.

이른바 매쿤-라이샤워 표기법만큼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표기법은 없다. 대부분의 영어, 프랑스 어, 독일어 지도에 한국 지명은 매쿤-라이샤워 표기법으로 되어 있다. 매쿤-라이샤워 표기법은 한국어의 발음을 적는 표기법으로서 서양인들의 귀에 들린 대로 적는 표기법이다. 1984년부터 2000년 7월까지

사용되었던 옛 로마자 표기법은 매켄-라이샤워 표기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표기법이 가지는 결정적인 문제점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자음과 모음 모두 어느 모로 보나 이 표기법은 한 언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옛 표기법의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매켄-라이샤워 표기법이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 외국인들은 매켄-라이샤워 표기법을 원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도, 백과사전, 데이터베이스 등을 바꾸지 않을 것이니 새 표기법은 국내에서만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로마자 표기법을 바꾸더라도 외국은 한국의 지명을 종전 표기법대로 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외국에도 지명이 바뀌는 사례가 흔하다. 구소련 붕괴 후 많은 도시들이 제 이름을 되찾았다. 레닌그라드를 전 세계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인도의 봄베이와 마드라스가 뭄바이와 첸나이로 바뀐 것도 한 예다. 버마는 미얀마로 아예 국명이 바뀌었다. 그 수도 랑군은 양곤으로 바뀌었다. 잘못된 표기법에 따른 로마자 표기는 바뀌어야 마땅하지 세계적으로 널리 써 왔다고 해서 계속 쓸 수는 없다.

4.2. 이러한 사실을 전문가, 일반인, 공무원, 학생들에게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사용자인 국민들과 외국인들에게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기차 여행을 하다 보면 기차 안에 문화관광부에서 제공한 자료가 의자마다 놓여 있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 속에서 널리 알리는 일이야말로 새 로마자 표기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글 맞춤법을 로마자 표기법으로 자동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기왕의 21세기 세종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어 정보화 사업에서 이를 맡아서 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 본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육

의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에 이를 포함하여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며, 영어 교과서의 인명, 지명 표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진행 중인 제7차 교육과정에 바로 반영해야 할 과제라 본다.

5. 새 로마자 표기법을 적극 사용하여 정착시키자

설득과 이해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생활에 적극 사용하는 일이다. 이제 새 로마자 표기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본다.

5.1. 관련 행정 부처에서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이 일을 주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고, 교육부에서는 학교 교육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지만, 관련 다른 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선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 지침을 통해 적극적인 실천과 관련한 의지를 표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공문서, 행정기관의 표시, 봉투 등에 새 표기법을 사용하도록 각 기관을 계도하여야 할 것이다. 각종 공무원 교육 과정에 이를 포함하는 것도 쉬운 실천 방법이 될 것이다. 인명 표기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교통상부의 여권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 표기의 표준안이 마련되면, 적어도 새로 등록하는 여권에서부터 새 로마자 표기법으로 표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상호, 상품 이름 표기에서 새 로마자 표기법이 받아들여지도록 경제 관련 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실천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5.2. 단체 및 회사에서도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관습적으로 써 온 것을 하루 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가을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렸는데, 국제적으로 PIFF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다.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의 첫 글자를 딴 말이다. Pusan 표기가 Busan으로 바뀌었다고 이걸 어떻게 BIFF로 바꾸느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처럼 단체나 회사가 새 표기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나, 예를 들어, '금성사, 선경'과 같이 회사 이름 자체를 'LG전자, SK'로 바꾼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회사 이름이나 단체 이름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기를 바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대성'이라는 회사가 대외적으로 Taesung으로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홍보를 통해 Daeseong으로 고쳐 나가도 괜찮을 것이다. 학교 이름, 행사 이름도 새 표기법에 따르도록 노력하는 실천의 의지가 필요하다.

5.3. 다음으로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언론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언론에서 국민들에게 새 표기법의 내용을 널리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일이다. 방송, 신문, 더 나아가 이 매체를 이용하는 광고에서 그러하다. 특히 외국어로 발행되는 신문의 경우, 어떤 표기법이 더 효율적이고, 우리말,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5.4.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들도 새 로마자 표기법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알리고 노력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규범을 지키는 일의 가치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다. 언어와 문자의 기능은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데에 있다. 그러한 도구가 개인마다 서로 다르면 의사소통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언어와 문자의 규범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범을 지키는 일은 의사소통을 잘 수행하기 위한 기본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사회 생활과 문화의 기반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로마자 표기법은 그 특성상 정답이란 있을 수 없고, 오직 정답에 가까운 모범답이 있을 뿐이다. 이번에 새로 만든 로마자 표기법은 바로 이러한 모범답에 이른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이해하도록 설득하고, 그리고 온 국민이 그 내용을 알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의 어문 규범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다.